

로컬라이프

군산시,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254억원 투입

군산시가 바다와 어촌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품목으로 어촌간접을 목표로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양수산정책, 연근해 어업 관리 및 연안환경보전, 기르는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관리, 수산물유통관리, 도서어촌 어항 기반시설확충 수산물 특화단지 관리 및 운영 등 7개 분야 86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해양동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근대역사 박물관과 연계해 내항일대와 해양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현대화된 수산물종합센터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LINC사업단, 사업성과보고회 상금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이 전라북도 R&D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상 상금으로 받은 200만원 전액을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지난 9일 대외협력홍보처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은 "신학 협력 목적은 대학의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있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LINC사업단 모든 구성원과 함께 원광대의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광대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기업,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학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준공 박차

군산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지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오는 4월 준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10월 착공해 국비 134억원을 포함 총 280억38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을 94%가 진행된 상태이다.

사업 대상지인 내초동 226-45번지 일원은 과거 폐가물 매립이 종료(92.12월 ~ 96.6월)된 지역으로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시민의 공간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비위생매립장이 정비되면 조성된 부지는 화물차량 주차난 해소, 화물차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팜 설맞이 이벤트

군산시 우수 농수산물 홍보공간인 군산팜(www.gunsanfam.co.kr)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이벤트를 실시한다.

군산팜에서는 이벤트 기간 내에 한과 꽃게장, 조미김, 장류 등 설 선물 상품을 5~20% 할인 판매하며, 이벤트 기간 중 최고 구매고객 5명, 행운의 번호(1.11.22...) 구매고객 10명, 우수 이용후기 작성 고객 10명 등 총 25명에게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063-454-3043) 또는 군산팜(063-467-3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렬 농산물유통과장은 "과민 분들에게 전하는 설 선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 식품으로 준비해 지역사회가 가득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의 우수 농수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고용노동지청, 체불 상황 전담팀 운영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물량감소 및 도크 폐쇄 위기 등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여파로 근로자 체불임금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금정수)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군산·부안·고창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총 1043개 사업장, 근로자 2643명, 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원보다 18억8000만원(17.4%)이 증가했다.

이 같은 체불액은 2011년 59억6600만원, 2012년 76억원, 2013년 82억1000만원, 2014년 104억6300만원에 비해 역대 최고액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6억원(60.4%)과 건설업 24억원(19.1%)이 전체 80%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각각 16억원(27.3%)과 6억원(33.6%)의 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8억50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8억39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 3억3200만원, 기타 6억원 순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과 10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불액이 증가한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폐업과 경기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8일까지 설 명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 상황 전담팀'을 운영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화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원·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금정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지역, 지난해 대외무역 수지 흑자 전환

수출 38억1600만 달러로 22%증가·수입 33억2600만달러로 8% 감소

지난해 군산지역 대외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지역 수출은 38억1600만 달러로 전년 31억2000만 달러에 비해 22% 늘었다.

반면 수입은 지난해 33억2600만달러로 전년 36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8%가 줄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수지는 2015년 4억89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4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한국지엠(주)의 수출부진으로 전년대비 49%가 감소한 6억8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은 현대중공업(주)의 기존 수주물량에 힘입어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11억9900만달러를 보였다.

또 기계류 5억5800만달러(△16%), 유기화합물 3억6000만달러(16%), 무기화합물 3억4300만달러(81%)를 보였다.

수입은 곡물 7억6900만달러(△7%), 사료 3억5900만달러(△10%), 철강 3억2900만달러(1%), 펄프 2억3300만달

라(△6%), 자동차 1억9600만달러(22%) 등이었다.

수출은 중국이 4억7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마셜 제도 2억6300만달러, 벨기에 2억4900만달러, 미국 2억2400만달러, 그리스 2억1000만달러, 리비아 2억300만달러 순이었다.

수입은 역시 중국 8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질 3억9900만달러, 미국 3억5200만달러, 일본 2억800만달러, 아르헨티나 1억9000만달러, 우크라이나 1억2500만달러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정현울 익산시장과 신년 간담회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영미)는 10일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출산장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현울 익산시장과 지역 여성 리더 40여명과 함께 하는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여성의 자의의식을 확산시키고 시정시책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 직능단체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토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단체 대표들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가임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출산과 육아에 부담 없는 직장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정현울 시장은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고 있다"며 "시는 여성

의 자기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월명공원 어린이 숲·자연 체험 교육 공간 조성

군산시가 2017년 시정운영 3대 핵심과제인 어린이행복 분야 사업 일환으로 월명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숲과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월명공원의 아름답고 건강할 숲 기능 회복을 위해 테마가 있는 조림사업 시행과 함께 꽃동산, 경관숲, 유아체험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월명공원 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어린이를 위한 유아체험 및 숲교실 등 교육공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녹음이 우거진 숲에 쉼터 조성, 자연소재 놀이기구와 팽삭 등 휴게시설 조성, 수목 포찰 설치 및 동물관찰장 등 친근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편백나무숲 내 체험시설



확충, 임간(林間) 교실, 통나무자 등 시설 보강과 함께 숲해설 전문가를 초빙해 유아·어린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 아동시설 아동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공원을 시

민의 휴식 공간과 건강한 산림으로 복원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면 개칭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에 적용하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폭을 확대해 주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에 대



새로운 도약과 화합 익산시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성배)가 10일 오전 영등동 모차에서 익산시장 및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기관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인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사업계획 소개, 신년인사, 축사, 내빈축하, 신년축하 떡 절단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관소리 다섯마당 최연순 발표자인 소리꾼 이더은 양이 신명나는 관소리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며 정유년의 희망찬 출발을 축하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지난해 민간 사회복지인들이 소동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 부문 평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

화 대상 등 6개 부문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복지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렸으며 "올해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배려와 나눔이 넘치는 복지허브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인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오성배 회장은 "2017년 정유년의 희망찬 기운을 가슴에 품고 사회복지인 모두가 화합하며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5년에 창립되어 지역의 사회복지 조사·연구, 교육, 교류·협력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민간복지진달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지역복지증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농기센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익산시는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첫날 오후 정현울 익산시장은 농업인교육관을 찾아 교육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정현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이 곧 미래 경쟁력이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미래농업국을 신실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농정가버너스를 통해 농정역량과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국내의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내실 있는 영농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완성과 과수 과정을 야간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우수관리농산물(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인증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GAP 인증을 갱신하거나 인증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작 농가들은 고품질 쌀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정대책을 농업인과 공유하며 한 해 농사를 계획하는 시간"이라며, "실용교육 후에는 품목별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작목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경, 불법 수산물 포획 강력단속

해경이 스쿠버 다이빙 정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조업 분쟁을 막기 위해 불법 잡수기 어선 등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은 오는 16일~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잡수기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정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절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잡수기 어선 운용 ▲스쿠버 다이빙 정비를 사용한 무허가 어업행위 등이다.

실제 지난 1일 저녁 8시경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정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던 스쿠버 다이버가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불법어업 자체가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 개인의 작은 이익보다는 안전과 바다 생태환경 보전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군산소방서가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군산소방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면 개칭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에 적용하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폭을 확대해 주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에 대

한 불법행위를 포함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정되면 신고자는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군산=문정근기자